

언어재활사 선서식 훈사

오늘 제 1회 언어재활사 선서식에서 예비 언어재활사로서의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우송정보대학 언어재활과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교법인 우송학원 김성경 이사장님, 전국언어치료기관협의회 대전지부 김 주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학부모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선서식은 2012년 개설된 언어재활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선서식이기도 더욱 뜻 깊은 자리라하겠습니다. 1기 예비 졸업생인 여러분들은 우송인으로서 그리고 언어재활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하여 언어재활 전문직을 수행하여야 할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번 선서식을 통해 의사소통에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봉사하는 예비 언어재활사로서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우송정보대학 언어재활사 선서생 여러분!

오늘 선서식을 맞이하여 미래의 언어재활사가 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선 여러분들에게 저는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언어재활 전문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습에 노력 정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와 치료가 다른 사람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대상자의 문제를 정확히 잘 파악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둘째, 대상자의 의사소통 문제 뿐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고통도 함께 치유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인성을 겸비한 언어재활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치료할 대상자의 주된 문제는 외형적인 의사소통 문제이지만 그로 인해 고통 받는 내면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언어재활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어치료가 효과적이려면 대상자와 신뢰 깊은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평가하고 치료하는 전문가입니다. 자기희생과 인내심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든 일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치료하면 대상자들의 의사소통 문제가 호전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치료에 임한다면,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에 만족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상실습에서 대상자를 대할 때, 또는 나중에 언어재활사가 되어 어느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이 세 가지 당부를 명심하고 일한다면 훗날에 훌륭한 언어재활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예비 언어재활사 여러분의 앞날에 큰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뜻 깊은 선서식을 준비해 주시고 참된 언어재활 전문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언어재활과 교수님들, 또한 무엇보다도 선서생들의 뒷바라지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신 학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3014.5.22.)